

K-기업, 역대급 실적에도 못 웃어 성과급 협의 등 노조리스크 ‘진통’

높은 실적에 보상심리 커져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갈등도
“노사관계, 기업경영 핵심 변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조 리스크로 조용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력을 과시했고 현대차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근무환경, 성과급 등을 놓고 노사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인센티브 지급 소식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반수 노조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노사문

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5개 조합이 활동하는 복수노조 체제로 단일 과반 노조는 없었다. 초기업노조가 공식적으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할 경우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초기업노조는 임금 개선과 조합원 복지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당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및 처우 체계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단일 과반 노조가 출범하더라도 반도체와 세트 사업 간 실적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 보상이 사업부간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호황기 기준으로 높아진 보상 기대가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움직임은 국내 완성차 업계 만연한 현대차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매년 입단협 협상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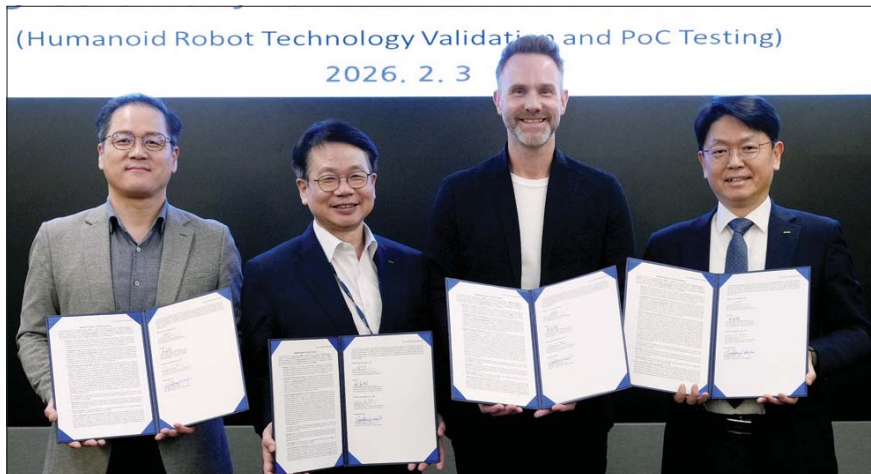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되풀이 했지만 올해는 현대차가 미래 경쟁력으로 내세운 로보틱스 전략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생산성과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 국내 공장에 로봇 투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역대급 실적에도 ‘공정 보상’과 ‘기술적 전환’에 대한 노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성과급 불만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향후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속도

포스코그룹은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 페르소나 AI 등 4개사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좌측부터)정규호 포스코 DX전략실장, 심민석 포스코DX 사장, 니콜라스 래드포드(Nicolaus Radford) 페르소나 AI CEO, 김근환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AI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전시

코리아빌드워크서 59.5㎡ 주택 선포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에서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2026 코리아빌드워크’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코리아빌드워크’는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소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목조 모듈러 주택사 ‘공간제작소’와 협업해 AI 홈 기반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적용한 59.5㎡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전시된 모듈러 주택은 현관, 세탁실, 주방, 거실, 드레스룸, 침실, 보안 등 총 7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귀가부터 휴식과 수면, 안전 관리까지 일상 전반에 적용되는 최신 AI 홈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양혜순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가전과 스마트싱스를 적용한 모듈러 주택 전시를 통해, 실제 주거 환경에서 AI 홈이 제공하는 가치와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며 “다양한 주거 형태에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모듈러 홈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주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방산3사,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 첫 공개

월드 디펜스 쇼 2026

역대 최대규모 전시부스 운영
“사우디 국방·산업자립 기여”

한화는 오는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2026(WDS 2026·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방산3사 통합 전시부스를 구성해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 방산 3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7㎡(야외 50㎡ 포함)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AI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인 ‘배화형 정밀유도무기(L-PGW)’를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이는 L-PGW는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타격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로, 위성 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뒤 타격 단계에서 자폭 드론이 분리·발사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WDS 2026’ 한화 부스 조감도.

/한화

한화시스템은 감시정찰과 우주, 해양 전장을 아우르는 AI 기반 미래 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지상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돼 저고도에서 드론 등으로 다변화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레이다(MMR)를 공개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한화오션이 잠수함과 수상함을 아우르는 네이벌 솔루션 역량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진수된 장보고-III 배치-II 30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잠수함 기지, 수상함, 무

인수상정 등이 전시된다. 특히 운용국가 맞춤형 토발 패키지 형태의 잠수함 기지는 설계와 건설, 장비 공급은 물론 정비와 운영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제시된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팀이 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협력사와 함께 세계 시장에 함께 나가겠다”며 “사우디의 국방과 산업 자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민희 기자 wkh@

캐나다 국방조달장관, HD현대 GRC 방문

잠수함·함정 건조 역량 점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의 핵심 인사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이 HD현대를 찾아 잠수함·함정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직접 점검했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오전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필립 라포르툰 주한캐나다대사 일행이 HD현대 글로벌 R&D센터(GR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관 일행은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본부장(부사장)의 안내로 구축함·호위함·잠수함·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건조해온 주요 함정 전력을 살펴봤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기반 미래형 선박



4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 일행이 HD현대 관계자들로부터 잠수함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선박·자율운항 분야 기술 역량도 점검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현대로템, 3200억 규모 경전철 사업 수주

캐나다 에드먼턴 시정부 계약

현대로템이 캐나다 에드먼턴시(市)에서 운행되는 모든 경전철(LRT) 노선에 철도차량을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3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州) 에드먼턴 시정부와 약 3200억 원 규모의 고정형 경전철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형 궤도차량을 의미하는 경전철은 주로 도시의 교

통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트램(노면전차)도 경전철 범주에 해당한다.

현대로템이 이번 수주한 경전철은 총 32편성(편성당 3량)으로 최고운행속도는 80km/h이다. 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해 주변부를 이어주는 캐피탈과 매트루 노선에 투입될 이 차량은 기존 노후화 차량을 대체해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현대차·기아, 1월 미국시장 역대최대 판매

하이브리드·SUV 중심 구조재편 주요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1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고부가 차종인 하이브리드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재편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판매 실적은 12만529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성장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6만794대로 2.4% 확대됐고, 기아는 6만4502대로 13.1% 늘었다.

현대차는 리세이드가 8604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다. 코나(5321대)도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

하며 SUV 판매 호조가 지속됐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5170대 판매로 전년비 6.6% 증가했다. GV80(1945대·21.3%), GV70(2220대·9.8%)가 브랜드 판매를 이끌었다.

기아는 셀토스(5278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5.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전년 동기 대비 카니발(5879대)이 60.4%, 니로(3170대)가 163.7%, K5(6276대)가 44% 성장했다.

/양성운 기자